두 가지 예언, 두 가지 미래

(신명기 18:1~22)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예언, 두 가지 미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두 가지 예언, 두 가지 미래'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예측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능미래는 올 것 같은 미래이고, 선호미래는 왔으면 하고 바라는 미래로 다르지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미래와 올 것 같은 미래가 일치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보느냐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선호미래와 가능미래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인간의 마음가짐은 선호미래 한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선호미래를 한 가지 미래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미래는 가능미래가 아니라, 선호미래를 위협하는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를 과제로 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호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측되는 난관들을 헤쳐 나가려고 하는 데에 인간의 노력이 기울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름대로 구약시대의 미래학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미래학자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신다고 합니다.

10~11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몰렉 숭배를 말하는데 이렇게 아들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자식들인데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자식을 바쳐서라도 그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모레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미래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식을 투자해서라도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데, 인간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강렬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강렬한 관심으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다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핵심 키워드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들이 미래학자입니다. 지금도 점쟁이나 무당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제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을 미신과 주술과 사술 속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미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사술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IBM이 있습니다. 1934년 IBM 회장 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하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컴퓨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IBM의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1895년에 그 당시의 과학을 주도하는 중에 한 사람으로 스웨덴 왕립 과학원의 의장인 켈빈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건이 하늘을 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라고 했습니다. 음악계에서는 1962년에 큰 레코드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기타 음악은 한 물 갔다"라고 비틀즈를 향해서 한 말인데 이후로 비틀즈가 기타로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심지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게이츠가 1981년에 "개인이 쓰기에 충분한 컴퓨터의 용량은 640KB"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키로바이트(KB), 메가바이트(MB), 기가바이트(GB)'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무게로 환산하면 640g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용량이 500GB라고 하면 500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t이 1,000g입니다. 메가바이트가 1,000g이라고 하면 기가바이트는 100,000g입니다. 빌게이츠는 개인용 컴퓨터가 640g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가 500톤짜리입니다. 세상에서 과학적인 지식과 데이터가 뜻하는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 미신과 다를 바 없는 전문가들의 한계입니다.

자, 오늘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사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입

니다.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갖가지 사술을 통해 시도하는 이유는 선호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미래가 있는데 세상 되어 가는 꼴을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수없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4차원의 세계(영적세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이러한 사술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관심자체를 혐오하시는 이유는, 선민과 이방인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술이 지향하는 것은 선호미래입니다. 그러나 선민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오직 결과미래입니다. 그래서 선호미래를 위해 예언하는 마음가짐과 결과미래를 향해서 예언하는 마음가짐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예언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언은 선호미래를 위한 예언으로, 난관(재앙)을 예언하는 이유는 선호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선민에게 있어서 미래는 13절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 하라”라는 구절로부터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결과미래입니다. 여기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 하라’고 하는데 이 ‘앞’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할 때의 ‘임’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이고, ‘여호와와 함께 있으므로 완전 하라’에서 ‘완전 하라’는 의미상 ‘정직하라’는 뜻으로 ‘여호와와 함께 있음으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호미래를 위해 사술을 쓰는 이방인들이 미래에 관해 갖는 마음가짐과 반대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선호미래에 대한 마음가짐을 증오하시고 혐오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음으로서 정직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미래’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으니 시간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함께’라는 얘기는 ‘지금’을 말합니다. 오직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삶의 양상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선호하는 미래가 있어서 앞을 내다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좋아하는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데 꿈과 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점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인 지금을 등지게 됩니다. 지금 위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투명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축출해내는 것인데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듯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과 ‘선호하는 양상, 선호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시점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언제나 선호미래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호미래의 관점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언제나 지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예를 들어 10km떨어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미래입니다. 예언의 관심은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에 예언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사술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예언은 전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금을 등지게 하고, 미래학자들이 하는 일도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을 옮겨놓게 하여서 지금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데 무서운 일이죠. 이 하나님과의 거리측정이 성경의 예언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선으로 만나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지금 돈 버는 일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돈 때문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사업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업 때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려는 마음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 안에 들여놓은 것이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에 대한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활동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만나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갈 수 있을 때에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읽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말한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알았어요. 알고 있는 얘기를 왜 자꾸 또 하는 것입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레위인들은 또 거기서 십일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고 살고, 제사물 중에서 제사장 몫이 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 알았다니까요. 뭘 자꾸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레위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는 얘기는 레위인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은 곳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있는 것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의 존재의 의미와 레위인의 존재의 가치가 가장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들어오면 십일조를 떼어서 지금 나와 하나님의 연결을 가능하도록 돕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을 가능케 하는 레위인을 먹여 살릴 것인데 레위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레위인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하시는데 신약에서 행3:22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하고, 행7:37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거듭거듭 인용하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활동과 예언의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라고 하시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압니까? ‘증험과 성취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증험’은 진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에 대한 증거이고 ‘성취’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증험과 성취는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말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앞 신명기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

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서도 두세 달이 못 되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험과 성취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내용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예언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는 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사업 때문에 바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서, 지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사업이나 자식에 빠져있다 보니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므로,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들을 마음에 집어넣고 지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꼬집어 말하면서 '지금 너와 하나님의 거리는 20km이고, 10km라고 알려주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업과 가족과 자녀와 나라와 노후대책을 다 제거하라'고 예언했던 것이고 이 예언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일치한다.'는 고백을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증험과 성취를 보이는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전2: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셨고, 또한 갈3: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밝히 보인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펼치는 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인데 오직 십자가 사건에서만 증험과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이고 참 선지자인 것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세상의 미래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 형태로 예언기도를 한다든지, 제단을 쌓는다든지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끊임없이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을 등지게 만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선호미래의 상황을 꿈꾸게 하는데 점쟁이와 무당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미래가 좋아지고 잘 살 수 있으므로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한다면 점쟁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신 점쟁이가 강단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뭔지를 아예 모르고 예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편만해 있는데 엄밀히 말

해서 내용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선민이지만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에 목사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현재의 그런 상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미래는 결과미래 밖에 없습니다. 선호미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것이고 지금을 등지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이외에 돈, 건강, 자녀 때문에 기뻐하다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등지고 미래를 향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을 놓쳐버리면 생의 기쁨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면 지금이 간음하는 현장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자'고 한다면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 선민에게 미래는 오직 결과미래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지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에서만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세상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직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끌고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십자가복음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미래를 향하여 눈길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점쟁이가 되어서 점쟁이를 따르게 되고 무당을 따르게 되고 사술을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제일 혐오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유일한 가능성의 시간인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전능하신 지혜로 계획되어진 결과미래로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